



안전교육 참여로 보험료 절감

- 배달종사자 사고 예방과 경제적 부담 완화의 ‘안전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현대해상 협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러닝 “이륜차 사고예방교육” 2시간 이수하면 “이륜차 보험료 5% 할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이륜차 배달 종사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대해상과 연계하여 개발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을 3월 21일 개시한다.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노동자의 안전운전 실천을 유도하고 산재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은 공단의 이러닝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영업용 보험료 할인으로 연계되는 상품이다. 이번 특약으로 공단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배달종사자는 현대해상에서 운영하는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 또는 갱신 시 T-MAP 안전운전 할인 특약(최대 10%)에 더해 5%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교육이수 환경 조성을 위해 공단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이륜차 안전교육 안내배너 게시, 모바일 교육을 통한 이수 인정, 보험사 관련 상품 공지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플랫폼노동자의 안전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륜차 사고예방 사업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안전문화실천 추진단 활동을 통해 배달플랫폼사,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이륜차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이번 특약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이륜차 사고예방 교육 출시와 보험 개시를 시작으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이륜차 배달 종사자와 사고발생 데이터 등을 분석하고 교육제도 및 할인제도의 폭을 넓혀갈 방침이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사고 빈도가 높은 배달업 등에서 안전문화가 자연스레 정착하기 위해서, 안전이 보험료 할인으로 연결되는 종사자들이 체감 가능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공단은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안전문화홍보실 안전문화부	책임자	부 장	최원창 (052-703-0725)
		담당자	차 장	심동운 (052-703-0425)

